

신실한 청지기

성경말씀: 고전4:1-6

창8:22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왔다. 더운 날이 되었다.
때가 되면 올 것이 반드시 오는 것: 신실한 것이라고 한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한다.
믿음(faith)이 충만(full)하다는 뜻이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믿을 만하다'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가이저라는 간헐천이 있다. 물보라와 열기를 뿜어 올리는데 물기둥 높이가 50미터 정도 된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올드페이스플 가이저'이다. 평균 65분 간격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머리, 학력, 재능, 인물, 영어 등등...
그런데 오래가려면 신실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누구나 신실한 사람을 좋아한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신실함이기 때문이다.
신실함: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같은 것
그러므로 성경은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 준다.
가인과 아벨, 에사와 야곱, 사울과 다윗, 가롯 유다와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스도의 사역자(1절)

교회는 유기체(Organism)이며 또 동시에 조직체(Organization)이다: 생명체와 건축물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목사, 집사, 교사, 음악, 청소, 식사, 심방, 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파당 문제, 바울 파, 아볼로 파, 게바 파 등
그래서 그는 이 교회 사람들이 아직 육신적이라고 말한다(3:1). 파당이 있으면 육신적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사역자들이다(3:5-7).
사역자에 대한 오해: minister,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다. 원래는 종으로 섬기는 일을 말한다. ★★★
로마 시대의 배에는 밀바다에 들어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게 한 노예들이 있었다.
사역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주인에게 매어서 주인의 뜻대로 말없이 노를 젓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노 젓는 노예의 심정으로 교회의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내 뜻이 있을 수 없다. 내 뜻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4:1).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한다(요3:30). ★★★
하나님의 청지기(1절)

교회의 일꾼은 다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이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다. 주인의 것으로 그의 집을 다 다스렸으나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교회는 사람이다. 특히 하나님의 집안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집 식구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맡은 사역자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식구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내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 내 것으로 하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한다. ★★★
필요를 살펴야 한다. ★★★
그런데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신비들
미스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창조, 믿음, 구원, 교회, 휴거, 부활, 천국 ★★★

청지기 사역자의 조건

가장 큰 조건: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4:2).
청지기는 먼저 주인에게 신실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신실하면 집안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침례교회, 032-664-1611. www.cbck.org

"바울이 더 유명하냐?" "아볼로가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 주인 예수님에게 신실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신실하다고 하면 오해가 생긴다: 재능, 능력, 학식, 재물, 명예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의 신실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주인이 맡겨 준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다니엘서 6장, 다리오 왕, 120명의 통치자, 세 명의 총리
다니엘을 비난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무엇을 이용했는가? 그의 신실함을 이용했다(단6:4, 10).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되돌려 다니엘의 원수들을 죽이고 그에게 명예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단6:26-27).

신실한 자의 특징(집언)

1.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잠25:13).
2. 문제를 숨긴다(잠11:13)
3. 건강하게 한다(잠13:17).
4.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잠14:5).
5. 찾기가 어렵다(잠20:6)
6. 복을 누린다(잠28:20).

신실함의 적용

1. 학생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엡6:1). 공부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물리 화학 등
2.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엡5:25). 일해야 한다: 야곱처럼(창31:40).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다.
3.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엡5:22). 가정을 꾸려야 한다.
4. 부부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였습니까?"
5. 교회 모임: 빠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일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6. 국가와 민족: 애국해야 한다. 바른 사상을 가져야 한다. 죽을 때까지

결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
아브라함: 늙어서 아이가 없을 때에 불가능할 때에 그분의 말을 믿었다(창15:6; 17:7-8).
갈3:9, 바울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에서 건교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벧후3:9).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다.